

발의안 제30호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 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30호에 대한 찬성론 ★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교사 및 법집행 종사자들의 메시지

친애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수년 간 예산 삭감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대학,
공공 안전 서비스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4년만 두고 보더라도 학교 예산이 200억 달러 삭감되었고,
교사 수는 30,000명이 줄어들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에서 도
손에 꼽히도록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캘리포니아를 올바른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발의안 제30호인 학교 및 지역 공공 안전 보호법(Schools & Local
Public Safety Protection Act)은 현재 주지사 Jerry Brown, 여성 유권자
연맹,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있는 교육, 법집행기관 및
기업의 리더들로 구성된 연합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법안이 교육
및 안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만성적인
예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발의안이기 때문입니다.

- **큰 폭의 학교 예산 삭감을 막아 줍니다.** 발의안 제30호가 없을
경우 우리 학교와 대학들은 올해 추가로 60억 달러라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이같은 예산 삭감을 막고, 올해 캘리포니아 주내 학교에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발의안입니다.
이 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서를 최신판으로
바꾸고, 교사들을 재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 **지역 공공안전 예산 지원을 보장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서 공공 안전 자금 지원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치안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 **균형 예산 달성을 돕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균형
예산을 달성하고, 수년 간의 속임수와 차입을 통해 쌓인
캘리포니아주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질적 문제인 예산 부족을 종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발의안 제30호는 최고 소득 계층,
즉, 연간 소득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부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판매세는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의 세금은 한시적이고 균형적으로 사용되며 교육
및 안전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 **최고 소득 계층에 한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 한해
소득세를 더 내도록 합니다. 한 해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부부의 경우 소득세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 **모든 신규 세입은 한시적입니다.** 발의안 제30호의 세금은
모두 한시적이며, 이 발의안은 유권자의 찬성 없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고 소득 계층의 경우 7년 동안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판매세 조항은 4년 간 유효합니다.
- **돈은 입법부에서 손댈 수 없는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학교를 위해 마련된 기금은 입법부가 손을 댈 수 없고, 주정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 **발의안 제30호는 의무적 감사 실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독립
감사의 의무 시행을 통해 기금이 교육 및 공공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여성 유권자 연맹, 캘리포니아주 교사, 공공 안전 분야 종사자들과
그 뜻에 동참하십시오.

발의안 제30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학교와 공공 안전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YesOnProp30.com을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ENNIFER A. WAGGONER,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DEAN E. VOGEL, 회장
캘리포니아 교사 협회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 발의안 제30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0호 지지자들은 우리가 큰 폭의 세금 인상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교육 시설을 원하지만
세금 인상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수천 가지의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방대한
관료주의 및 낭비를 줄이고 간소화하는 대신 세금을 인상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한 일을 놓고 보자면 50억 달러 상당의 캘리포니아
공채를 "목적지 없는 초특급 열차"에 지출 승인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연간 3억 8천만 달러의 부담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학교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합니다. 연간
판매세를 10억 달러 인상하고 소기업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학교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새로운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이 현재 교육 예산으로
책정된 돈을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에게 예산, 연금,
교육에 대한 개혁 없이 백지 수표를 주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중소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계속
낭비할 돈만 더 대주는 법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30호는 겉보기와 다릅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더 많이 가져가면서 경제를
해치고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여기에 속을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JOEL FOX, 회장
중소기업 행동 위원회
JOHN KABATECK, 전무이사
전국 독립기업 연맹/캘리포니아
KENNETH PAYNE, 회장
새크라멘토 납세자 연합

★ 발의안 제30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500억 달러짜리 정치적 "숙임수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를 위한 신규 예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7년간 지속되는 대폭적인 세금 인상엔 찬성하기만 하면 그에 따른 신규 세입이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입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정치인들이 학교에 신규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숙임수 게임"을 하게 해 줍니다.

- 원래 학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그 돈을 신규 세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돈을 가져가고 다른 손으로 다시 갖다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든 발의안 제30호는 학교를 위한 신규 지원을 단 한 톨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많은 교육자들이 이같은 결점을 지적했고, 캘리포니아 학교 이사회 협회(California School Boards Association)에서도 "... 주지사의 발의는 학교를 위한 신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2012년 5월 20일).
- 월스트리트 저널도 같은 결점을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은 세금 인상분이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번 11월, 자신의 세금 인상안에 찬성하도록 유권자들의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실정을 알고 보면, 신규 세입분은 파산 상태인 교사 연금 기금을 메우는 데 필요한 것이다."(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2012년 4월 22 일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발의안 제30호의 공식 타이틀과 요약문을 확인해 보면 그 돈은 "돈이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 ..."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돈이 한 톨이라도 추가적으로 학교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무 규정이나 보장도 전혀 없으며 발의안 제30호에는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관료주의를 없애거나,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특수 이해 단체들은 물쓰듯 하는 자신들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은 인상하기를 원하면서 의미 있는 개혁안의 통과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특수 이해 단체들과 그들이 조종하는 정치인들은 연금 개혁안의 통가를 막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 기금 부채가 남아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실질적 개혁안 통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예산 개혁안 통가를 막은 것도 이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늘어나는 세입이 낭비되지 않는 다거나 실제로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개혁도 추구하지 않는 지출에 소비할 돈만 더 제공함으로써 이처럼 위험한 행동을 부추깁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의 위협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하는 주지사와 정치인들 및 특수 이해 관계 단체들은 유권자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안하는 대폭적 세금 인상엔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 제도나 연금 제도의 개혁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학교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나 보장도 없는 500억 달러 세금 인상엔 찬성하는 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 절감을 개혁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세금 인상 대신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TOM BOGETICH, 명예 이사
캘리포니아주 교육 위원회

DOUG BOYD, 회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 위원회

★ 발의안 제30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수년 간 예산 삭감이 계속되어 온 만큼, 이제는 학교와 지역 공공 안전 보장을 위해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발의안 제30호의 엄격한 재정 통제는 학교와 공공 안전 목적으로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 조세 수입은 입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학교의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 매년 이 돈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것이며, 행정부나 새크라멘토 공무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의안 제30호는 예산의 낭용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과밀 학급에서 시달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지속적인 학교 운영과 치안 유지를 위해 최고 소득 계층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합니다.

- 금년도 대폭적인 학교 예산 삭감을 막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60억 달러에 달하는 학교와 대학의 금년도 예산 자동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가 없는 경우 금년도 학교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감축하고, 큰 폭으로 수업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수십억 달러의 신규 학교 예산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30호가 가져다 주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예체능과 같은 수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공공 안전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주 헌법으로 지역 공공 안전 예산을 보장하며, 향후의 교도소 지출 비용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균형 예산 달성을 돕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주 균형 예산 달성을 위한 장기적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교사, 법집행기관, 기업 리더들, 주지사 Jerry Brown은 모두 발의안 제30호가 캘리포니아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YesOnProp30.com을 참조하십시오.

JENNIFER A. WAGGONER,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JOSHUA PECHTHALT, 회장
캘리포니아 교사 연맹

SCOTT R. SEAMAN, 회장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